

제주속담을 활용한 관광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 연구

- 제주지역 장소관련 속담을 중심으로 -*

임화순** · 김원보*** · 남윤섭****
(제주대학교)

Lim, Hwa-soon, Kim, Won-bo & Nam, Yoon-seob. 2015. **The Study on development of tourist storytelling contents using Jeju Proverbs.** *Journal of Linguistic Studies* 20(2), 159-177.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storytelling as tourism contents and to represent a storytelling process model for communication between tourists and Jeju proverbs. In this study we analyze the contexts of Jeju proverbs and give the 'attachment to place' to space. This study is to develop the tourism contents by applying the travel course storytelling based on Jeju proverb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tourism storytelling, this study aims to provide more pleasure of tourists. In addition, proverbs can restore the forgotten pleasure by using storytelling. This study represents storytelling as a way of the communication between tourists and Jeju proverbs. (Jeju National University)

Key words : Jeju Proverbs, storytelling, tourism contents, travel course

1. 서론

속담(俗談)이란 민간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짧은 이야기로서 격언(格言)이나 잠언(箴言)과 같은 것이다(두산백과사전). 속담이 격언이나 잠언과 구별되는 점은 민간에서 구전되어 왔다는 점인데, 민간에서 구전되어 왔다는 특성상 명확한 표준어 표기가 어렵기 때문에 연구의 기초자료로

* 이 논문은 2014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4S1A5A2A03065016)

** 제1저자, *** 교신저자, ****공동저자

서 다양하게 활용되지 못하였다는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속담은 민간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의 평범한 문화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고, 민족의 정서에도 잘 부합한다는 특징이 있다(심지연, 2008).

이러한 특징은 해학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어, 속담을 접하는 청자에게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의 자원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다.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이미지나 단어, 소리, 사진 등을 이야기를 통해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위키백과사전). 그러나 최근에는 어떠한 사물이나 장소에 새로운 이야기를 접합시켜 감성을 자극하여 소비자의 소비패턴에 영향을 주는 기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스토리를 도입한 온라인 게임이나 광고, 교육분야 까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관광분야에서도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여행상품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최인호 · 임은미, 2008). 특히, 관광분야에서 스토리텔링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스토리텔링은 인간의 알고자 하는 욕구와 유희적인 욕구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강력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며(김영순·정미강, 2008), 스토리 텔링을 통해 소비자에게 더 가깝게 접근할 수 있기(Ronald, 1997) 때문에 관광코스과 연계하면 동일한 코스라도 새로운 상품으로서 개발이 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속담은 관광객의 관심을 유발시키기에 매우 적합한 콘텐츠로 볼 수 있다. 속담의 표현구조는 간결하여 기억하기에 편리하다. 또한 간결한 속담의 표현방법은 압축된 어법과 생략법, 과장과 대조법, 비유법으로 매우 수사적이며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전달 내용이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체험이 바탕이 되므로 장황한 설명이 필요 없기 때문에 짧은 시간 지역을 돌아보는 관광객들에게 쉽게 각인될 수 있다. 속담표현은 다른 일반 표현과 비교해 볼 때 일상의 경험을 토대로 한 관용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이러한 속담의 특성은 스토리텔링의 요소로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한민국의 대표 관광지이자, 독특한 언어문화를 보유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방언 속담을 활용하여 관광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제주방언의 속담을 조사하고, 이중 관광 스토리텔링에 활용할 수 있는 장소 및 지명이 언급된 속담을 추출하여 DB구축을 실시하였다. 구축된 DB를 토대로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제주속담 스토리텔링 콘텐츠는 속담의 특성상 형식이 짧고 간결하여 제2언어로서 외국인들에게도 쉽게 어필할 수 있기 때문

에(박덕영, 2015) 단일 상품이 아니라 연계상품으로서의 역할이 더 클 것으로 예측된다.

2. 관련 선행연구 고찰

2.1 속담관련 선행연구

기존의 속담관련 연구는 국어학 또는 언어학적 측면에서 진행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속담의 어휘나 단어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의미를 밝히려는 연구(심지연, 2006; 추정자, 2004)부터, 속담전체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를 해석하여, 일반적 현상에 대해 이해하려는 연구(김은주 외, 2006; 장경현, 2007; 박인성, 2009), 속담의 언어적 특성을 활용하여 국어교육적으로 활용하려는 연구(이성영, 1991; 김봉순, 1995; 최권진, 2008, 박덕영, 2015) 등이 있다.

〈표 1〉 속담관련 선행연구

연구자	연구내용
김봉순(1995)	정확하고 효과적인 국어교육을 위해 속담의 설득성을 기반으로 조사하여 분석한 연구
김은주 외(2006)	한국 속담에 나타난 아동교육관을 살펴봄으로서 한국사회의 특성에 맞는 아동관광 교육관 형성에 기여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한 연구
박덕영(2015)	제2의언어로서 한국어 학습자가 의사소통 상황에서 속담을 이해하고 사용함으로써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연구
박인성(2009)	중국의 속담에 나와 있는 12지지의 동물에 대해 조사하고, 이러한 동물속담이 어떠한 비유와 상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연구
심지연(2006)	속담의 어휘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여 품사별로 용례와 빈도를 추출한 연구
이성영(1991)	속담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어법을 활용하여 국어교육에서 갖는 의미를 연구
장경현(2007)	속담 전체를 구성하는 색채표현이 어떻게 속담전체의 의미와 결부되고 있는 가를 연구
추정자(2004)	한국과 일본의 속담에 나와있는 신체적 어휘를 분석 언어적 차이를 분석한 연구
최권진(2008)	『속담으로 배우는 한국어』를 개발한 경험을 토대로 속담을 활용한 교재편찬의 원리와 과정을 제시한 연구

이러한 선행연구를 고찰해보면 속담을 연구하는 가장 주된 주제는 속담 자체의 어휘나 단어, 문법적 표현을 연구하는 언어학적 연구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속담을 우리 민족의 삶과 문화의 투영 결과물로 인식하고 속담 전체의 의미를 해석하고 삶의 모습이나 일상적 현상을 이해하려는 연구이다. 마지막으로 속담을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자 하는 연구인데, 이러한 연구는 대부분 국어교육의 수단으로서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들이다. 속담이 우리민족의 삶을 반영하고, 그 의미가 다양하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매우 제한적이다.

본 연구는 속담을 활용하여 관광스토리텔링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에 있는데, 본 연구와 관련이 있는 속담관련 연구는 연호택(1987), 김상규(2012, 2013a, 2013b) 등의 연구가 있다.

연호택(1987)은 외래 관광객을 상대하는 관광통역 안내원들이 관광 안내를 할 경우에 우리 속담을 인용하고자 하지만 그에 부합하는 영어식 표현을 몰라서 애를 먹는 경우를 문제시 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우리 속담과 영어속담을 비교하고, 우리 속담에 부합되는 영어식 속담을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 연호택의 연구는 스토리텔링 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관광종사원이 관광객을 상대할 때 속담을 활용하여 흥미를 일으키고 그 상황에 대한 이해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최초의 연구라 할 수 있다.

김상규(2012, 2013a, 2013b)는 십이지 동물관련 속담, 곤충 관련 속담, 계절관련 속담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경제교육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김상규의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속담을 하나의 콘텐츠로서 이해하고 접근을 시도하였다는 점이다. 속담의 특성은 인정하면서 하나의 콘텐츠로서 활용 가치를 평가하였고, 그 결과 경제교육에 적용할 경우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속담을 하나의 콘텐츠로서 이해하고 접근할 경우 그 활용범위가 더 크게 확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2 관광스토리텔링 관련 선행연구

최근들어 지역 관광산업을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지자체들의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소프트웨어적인 관광스토리텔링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임화순 외, 2012). 어느 사건이나 장소에 대해 감정

전달을 위한 도구나 프로그램으로서 이야기를 연속해서 구성하는 방식인 스토리텔링(Gephart, 1991)은 타인에게 새로운 감흥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관광분야에서는 새롭게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관광분야에서 스토리텔링을 연구한 사례는 스토리텔링이 관광객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김희정·김시중, 2012; 김효중, 2012, 임성택, 2014),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관광스토리텔링 개발에 관한 연구(김보성·이응규, 2014; 임화순 외, 2012; 권혁권, 2012), 스토리텔링을 디지털 기술과 연계하려는 연구(서종철·이승주, 2012; 차재빈·이훈영, 2015) 등이 있다.

〈표 2〉 관광스토리텔링 관련 선행연구

연구자	연구내용
김보성·이응규 (2014)	해양문학과 관광스토리텔링과의 관계고찰 등을 통하여 개발방안을 제시한 연구
김효중(2012)	스토리텔링이 관광객 만족 및 행동의도 등에 대한 영향관계를 확인하는 연구
김희정·김시중 (2012)	관광지 스토리텔링의 선택속성을 이용한 관광객의 관광경험이 행동반응에 영향을 미치며 관광객의 감정변수가 행동반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검증한 연구
서종철·이승주 (2012)	생태관광을 즐기는 관광객들이 현지에서 모바일 기기를 통해 생태, 문화, 역사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디지털스토리텔링 기법을 이용하여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연구
임성택(2014)	관광스토리텔링의 특성을 알아보고 그 특성이 고객의 지각된 가치와 어떤관계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고객의 지각된 가치가 실제 관광지 브랜드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확인하는 연구
임화순 외(2012)	소설에 나오는 문학공간을 분류하고 문학공간을 활용하여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제시한 연구
차재빈·이훈영 (2015)	관광객들의 스마트폰 사용 증가함에 따라 기술수용모델을 중심으로 관광지 스토리텔링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사용의도를 파악하는 연구
한형호(2012)	보길도에 존재하는 고산 윤선도의 역사유적과 문화를 스토리텔링이라는 방법을 통해 변별적인 장소의 정신을 느끼게 하려는 연구

관광스토리텔링 선행연구 중 가장 많은 주제는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관광객들의 감정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이러한 연구는 관광학 분야에서 폭넓게 진행되는 연구주제로서 관광객들의

감정변화에 작용하는 변수를 구하고 가설을 검증하는 방식이다.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스토리텔링을 개발하려는 연구는 대부분 문학작품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역사나 문화, 전설 등을 스토리텔링의 콘텐츠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문학작품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문학작품이 주로 활용되는 이유는 문학작품속 배경이 가지는 상징성과 관광스토리텔링의 목적이 적절히 조화되기에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성향에서 박한식 외(2009)의 연구는 김삿갓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인물의 서사구조를 중심으로 공간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와는 차이를 갖는다. 관광의 행태가 공간적인 틀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콘텐츠로서 활용되는 인물의 서사구조를 공간에 접목시켜서 프로그램을 구상하였다는 점은 관광스토리텔링의 실제 적용가능성을 확인한 연구라 볼 수 있다.

3. 연구대상지 선정과 연구방법

3.1 연구대상지의 선정이유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지를 제주특별자치도로 제한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한반도의 남서해상에 있는 대한민국 최대의 섬지역으로 행정구역상 아홉 개의 도(道)중 하나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960년대부터 정부주도로 관광산업이 개발되어 왔다가 지방자치제도 도입이후부터는 지방정부 주도로 관광산업이 활성화 되고 있는 대한민국 관광의 선도 지역이다. 관광인프라가 갖추어져 있고, 매년 100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하는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스토리텔링을 적용하기에 적합한 지역이기도 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섬지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고유의 문화가 다양하게 보존되어 있는 지역이다. 특히, 제주방언은 제주지역의 사투리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표준어로 사용되는 말에서부터 옛날의 고어를 포함하고 있는 보존가치가 큰 언어이다. 특히, 다른 지방의 언어에 비해 국어학적 가치가 매우 크다는 특징이 있으며(고재환, 2001), 현대 국어에서는 사라진 'ㅎ'와 같은 표현이 살아있기도 한 언어이다.

또한 제주방언은 섬이라는 제한된 지역에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 지역

의 문화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일부학자들이 제주방언을 제주어(濟州語)로 표기하고 그 가치와 의미를 연구하는 이유는 고대국어의 원형을 보전하고 있으며, 제주의 문화적 가치를 가진 살아있는 언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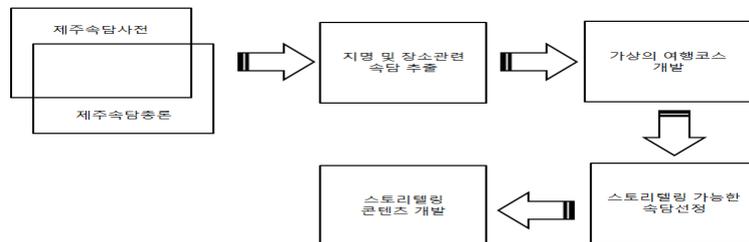
제주의 속담은 섬이라는 자연환경의 특징과, 곤궁했던 제주도민의 생활상, 수도(首都)에서 가장 먼 지역이 가질 수 밖에 없었던 소외감 등이 반영된 귀중한 유산이다(고재환, 2001). 제주의 문화를 관광객들에게 알리기에 속담이라는 콘텐츠는 매우 활용가치가 높으며, 실제 스토리텔링의 적용과정에서 다양한 관광객이 방문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제상황과도 매우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3.2 연구 진행과정

속담은 구전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전체 속담이 총 정리된 자료는 찾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제주속담사전(고재환, 2014), 제주속담총론(고재환, 2001)의 자료가 유익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주속담사전』과 『제주속담총론』에 명시되어있는 속담을 기본자료로 선정하였다.

기본자료의 속담 중 제주의 세부 장소와 관련된 속담을 발췌하여 정리하였다. 관광스토리텔링이란 실제 관광객에게 흥미와 감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세부장소에 대한 속담이 있을 경우 여행상품화 할 수 있기 때문에 장소를 기반으로 한 속담을 중심으로 하였다.

장소를 기반으로 한 속담을 중심으로 제주지역을 방문하는 가상의 여행코스를 개발하여 각각의 장소에서의 속담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그림 1] 연구 진행과정

3.3 기본 데이터 구축결과

『제주속담사전』과 『제주속담총론』에 명시되어 있는 총 2,039개의 제주속담 가운데 총 38개의 속담이 지명 또는 장소의 명칭이 포함된 속담으로 나타났다.

〈표 3〉 제주특별자치도 지명 또는 장소에 대한 속담 내용

속담	지명 및 장소
가파도 좋곡, 마라도 좋곡.	가파도, 마라도
강정 아이덜은 곤밥 주켁(켁) 흐면 울곡, 조밥(팝) 주켁(켁) 흐민 안운다	강정
관덕청(정) 마당에 심어당(단) 논 장독인다	관덕청(정)
관덕청(정) 설탕국도 먹어난 놈이 먹나	관덕청(정)
다(ㄷ)랑곳 다(ㄷ)랑곳 불다(ㄷ)랑곳, 도도리 도도리 좃도도리, 백개 백개 썩백개	다(ㄷ)랑곳, 도도리, 백개
대정 멍생이 요망진다	대정
대정 멍생이 요망진 책혀여도 목안(모관)가민 맥 못 춘다.	대정
대정서 죽 썩단 사름, 목안(모관)와도 죽 썩다.	대정
대정서 죽 썩단 솟, 목안(모관)와도 죽 썩다.	대정
대천바당이 술이라도 먹을 놈 엇(웃)으(이)민 못 먹곡, 한락(로)산이 금뎡이라도 쓸놈 엇(웃)으(이)민 못 쓴다	한락(로)산
드릿사름 배창웃 입엇 나사민 식개 시벵 흐다.	드릿
마라도 모기광 용수 모긴 사돈흐다	마라도, 용수
마라도 모긴 놀가죽 석 장을 딸르(루)곡, 용수 모긴 놀가죽 장 반을 딸른(룬)다	마라도, 용수
목안(모관)놈 못난 건 정잇놈 좃만도 못흐다.	목안, 정의
목안(모관)놈 앓아난 된 풀도 안난다	목안
목안(모관)서 뇌 치단(던) 솟, 대정 가도 뇌친다.	목안, 대정
목안(모관)서 죽 썩단 사름 대정 가도 죽 썩다.	목안, 대정
목안(모관)서 죽 썩단 사름 정의 가도 죽 썩다.	목안, 정의
목안(모관)서 죽 썩단 솟, 대정 가도 죽 썩다.	목안, 대정
목안(모관)서 죽 썩단(던) 솟, 정의 가도 죽 썩다.	목안, 정의
생이 다리 흐나로 굴막 상뒤 다 맥인다	굴막
애쓰게 하당(단) 보민 ㄱ다싯년 나(직)신다.	ㄱ다싯
영등들 초흐를(르, 루) 사을 불민 종달릿년 남죽 들렁(런) 춤춘다.	종달릿
용수 여즌 새백이 둑북 흐 집 안흐민 조반 안먹나.	용수

일 강정, 이 법관	강정, 법관
젠 몰 성안 감시민 뜯 몰 ㄱ으니믈(르, 루) 간다	ㄱ으니믈
젠 몰 성안 감시만 뜯 몰 도그내 간다	도그내
정의서 죽 썬단 사름, 목안(모관) 와도 죽썬다	정의, 목안
정의서 죽 썬단(던) 솟 목안(모관)와도 죽 썬다.	정의, 목안
조천관만 가민 꼭닙도 든다	조천관
종달리 소금 시끈 암쇄 가름 돌듯 흔다.	종달리
종달릿쎈 지때에 새끼도 못 난다	종달리
췌기떡 흔착(반착) 빵 종달리 간다.	종달리
즈드는 사름은 산짓물에 가도 궁근 팡에 앓나.	산짓물
촌이서 요망진 책흔단 놈 관덕청 마당에 오민 숨도 크게 못 쉰다.	관덕청
한락(로)산에 번구름 내치민 마 가나	한락(로)산
한락(로)산이 금뎡이라도 쓸 놈 엇(웃)으(이)민 못 쓴다.	한락(로)산
한락(로)산이 돈이라도 질빵(짐배/짐패) 엇(웃)으(이)민 못 지곡, 바당물이 꺾죽이라도 소(수)까락 엇(웃)으(이)민 못 먹나.	한락(로)산
목안(모관) : 넓은 의미로는 지금의 제주시를 통칭하지만, 과거에는 제주목 관아가 있는 제주성 안을 통칭함 정의 : 정의현감이 집무했던 지금의 표선면 서읍리를 중심으로 지금의 서귀포시를 포함한 그 동쪽지역을 말함 대정 : 서귀포시 대정읍 지역의 통칭 드랑곳 : 제주시 노형동의 속칭 도도리 : 제주시 도두동 백개 : 제주시 이호동의 속칭 드리 :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의 속칭 굴막 : 제주시 구좌읍 동북리의 속칭 ㄱ다시 : 제주시 오등동 남쪽에 있던 마을의 속칭 ㄱ으니믈 : 제주시 건입동의 사라봉 동남쪽 일대를 일컫는 속칭 산짓물 :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샘물의 이름 도그내 : 제주시 외도동의 속칭 조천관 : 제주시 조천읍 지역	

제주 속담중 지명 또는 장소에 대한 언급이 있는 속담을 조사한 결과 총 38개의 속담에 18개의 지명 및 장소가 언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속담의 특성상 대표성을 띤 상징적인 지역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아, 속담의 수보다 지명 및 장소의 수가 더 적은 것이 특징이다.

제주도의 두 행정시인 제주시, 서귀포시 중 제주시를 통칭하는 목안(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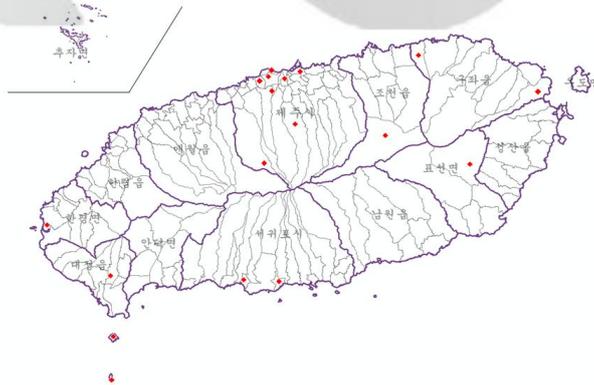
관)이라는 표현은 존재하지만, 서귀포시라는 지역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는 조선시대 제주도가 1목(牧), 2현(縣) 체제로 운영됨에 따라 대정현, 정의현이라는 명칭으로 지역을 구분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제주시(목안), 대정읍(대정현), 표선면(정의현)의 대표적인 지명외에 마라도와 용수리에 대한 속담이다. 마라도와 한경면 용수리를 비교하면서 비슷한 성향으로 분류하는 것은 지역의 특색이 유사하다는 인식이 제주도민 사이에 깔려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속담을 활용한 관광콘텐츠 개발 방안

4.1 가상의 여행코스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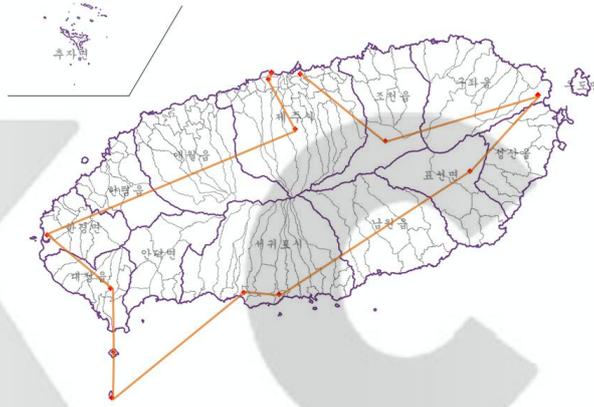
자료조사 결과를 속담에서 언급된 18개의 지명 및 장소를 현재의 위치로 재해석하여 표시한 결과 [그림 2]와 같았다. 속담에 언급된 장소를 기준으로 임의의 여행코스를 개발하였다. 여행코스는 매력물이 중심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속담에 언급된 장소라도 주변 관광 매력물이 없을 경우는 코스 선정에서 제외하였다.



[그림 2] 제주속담에 나타난 장소현황

¹ 현재 제주관광의 흐름은 하나의 관광지에서 머무르는 형태가 아닌 렌트카 등을 이용한 제주전역을 이동하는 형태로 변모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관광스토리텔링을 위해서는 가상의 여행코스를 통해 선적인 이동경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결과 「관덕정(제주시 삼도동)→목관아(제주시 삼도동)→도두봉(제주시 도두동)→한라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제주시 해안동)→당산봉(제주시 한경면 용수리)→대정성지(대정읍 보성리)→가파도(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마라도(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리)→강정천(서귀포시 강정동)→해녀체험센터(서귀포시 법환동)→성읍민속마을정의현터(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염전전시실(구좌읍 종달리)→교래 자연휴양림(제주시 조천읍 교래리)→물사랑홍보관(제주시 건입동)」을 연결하는 가상의 여행코스를 개발하였다.



[그림 3] 속담을 기반으로한 가상 여행코스

4.2 속담 스토리텔링 적용

속담 스토리텔링을 적용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항은 장소와 활용가능한 속담을 연계시키는 것이다. 다양한 속담 중 장소를 대표하는 특성을 보여주는 속담을 선정하였다. 속담의 해설내용을 통해서 관광지를 관광하는 관광객들에게 스토리텔링의 콘텐츠로서의 역할을 부여할 수 있다.

<표 4> 관광 장소와 적용가능 속담

장소(관광지)	적용가능 속담
관덕정 (제주시 삼도동)	관덕청(정) 마당에 심어당(단) 논 장독이다 관덕청(정) 설탕국도 먹어난 놈이 먹나

목관아 (제주시 삼도동)	목안(모관)놈 앓아난 된 풀도 안난다 목안(모관)놈 못난 건 정잇놈 좇만도 못한다. 목안(모관)서 너 치단(던) 솟, 대정 가도 너친다.
도두봉 (제주시 도두동)	다(드)랑곳 다(드)랑곳 불다(드)랑곳, 도도리 도도리 좇도도리, 백개 백개 씹백개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제주시 해안동)	한락(로)산이 금벵이라도 쓸 놈 엇(웃)으(이)민 못 쓴다. 한락(로)산이 둔이라도 질빵(짐배/짐패) 엇(웃)으(이)민 못 지곡, 바당물이 풋죽이라도 소(수)까락 엇(웃)으(이)민 못 먹나.
당산봉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마라도 모기광 용수 모긴 사돈혼다 용수 여즌 새백이 들복 흥 짐 안흐민 조반 안먹나.
대정성지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대정 멩생이 요망진 책혀여도 목안(모관)가민 백 못 춘다. 대정서 죽 썩단 솟, 목안(모관)와도 죽 썩다.
가과도 (서귀포시 대정읍 가과리)	가과도 좋곡, 마라도 좋곡.
마라도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리)	마라도 모긴 놀가죽 석 장을 딸르(루)곡, 용수 모긴 놀가죽 장 반을 딸르(룬)다
강정천 (서귀포시 강정동)	강정 아이털은 곤밥 주켁(켁) 흥면 울곡, 조밥(팍) 주켁(켁)흥민 안운다
해녀체험센터 (서귀포시 법환동)	일 강정, 이 법환
성읍민속마을 정의현터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정의서 죽 썩단 사름, 목안(모관) 와도 죽썩다
염전전시실 (구좌읍 종달리)	종달리 소금 시끈 암쇄 가름 돌듯 혼다. 종달릿썩 지때에 새끼도 못 난다
교래 자연휴양림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드릿사름 배창웃 입엉 나사민 식개 시넵 혼다.
제주물사랑홍보관 (제주시 건입동)	즈드는 사름은 산짓물에 가도 궁근 팡에 앓나.

4.3 속담 스토리의 해설

속담 스토리텔링의 콘텐츠를 완성하기 위하여 각 속담에 대한 해설을 정리하였다.

「관덕청(정) 마당에 심어당(단) 논 장독이다」
: 관덕정 마당에 잡아다가 놓은 수탉이다.

「관덕청(정) 설탕국도 먹어난 놈이 먹나」
: 관덕청 설탕국도 먹었던 사람이 먹는다.

관덕청은 제주 목관아 앞마당에 해당하는 장소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변화한 변화가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했으며, 일반 백성들이 보기에는 신분 이 높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위엄있는 장소로 인식되기도 했다. 그래서 역센수탸이라도 기를 못퍼는 행태를 우스꽝스럽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음식을 빗대어 경험이 없는 사람의 촌스러움을 놀리기도 하였다.

「목안(모관)서 너 치단(던) 솟, 대정 가도 너친다」
: 목안서 이 찌던 솟, 대정 가도 이 찌다.
「대정서 죽 썬단 솟, 목안(모관)와도 죽 썬다」
: 대정서 죽 썬던 솟, 목안 와도 죽 썬다.
「정의서 죽 썬단 사람, 목안(모관) 와도 죽썬다」
: 정의서 죽 썬던 사람, 목안 와도 죽 썬다.

조선시대 제주도는 제주목(濟州牧), 대정현(大靜縣), 정의현(旌義縣)의 1목(牧), 2현(縣) 체제로 운영되면서 세 지역은 늘 비교의 대상이 되었다. 그 중 위의 속담들은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사는 지역이 바뀌었다고 해서 타고난 직분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목안(모관)놈 맞아난 된 풀도 안난다」
: 목안놈 앓았던 데는 풀도 안 난다.
「대정 몽생이 요망진 책혀도 목안(모관)가민 맥 못 춘다」
: 대정 망아지 야무진 책혀도 목안가면 맥 못춘다.
「목안(모관)놈 못난 건 정잇놈 좇만도 못한다」
: 목안놈 못난 것은 정잇놈 좇만도 못한다.

제주목과 대정현, 정의현을 비교하면 제주목은 제주의 주도로서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제주목이 가장 변화하고, 상업등이 발달한 도시로서의 이미지가 있어서, 제주목 사람들은 약아빠진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대정이나 정의현 사람들이 아무리 야무진 척

하여도 도시로 가면 능력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큰 도시인 제주목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 똑똑하고 우월한 것은 아니다. 그 중에서 잘못된 사람은 오히려 시골사람들만 못하다고 비아냥거리고 있다.

「다(ㄷ)랑굿 다(ㄷ)랑굿 불다(ㄷ)랑굿, 도도리 도도리 좃도도리, 백개 백개 씹백개」
: 다랑굿 다랑굿 불 다랑굿, 도도리 도도리 좃도두리, 백개 백개 씹백개

산간쪽에 있는 다랑굿(노형동)과 해안에 있는 도도리(도두동), 백개(이호동)를 연결시켜 마을사람들의 기질과 남녀의 성기를 비유시킨 말이다. ‘불다(ㄷ)랑굿’은 남자의 고환이 달린 모습을 표현하는 ‘ㄷ랑ㅎ다’의 어근에 연계시켜 노형사람들의 남성적 기질을 보여주는 것이고, ‘좃도도리’는 남근처럼 우쭐대고 꺼떡거리는 기질이 강하다고 해서 붙여진 것이다. ‘씹백개’는 여성의 음부를 해변의 흰모래를 가진 이호동사람들과 연계시킨데서 유래된 것으로 전해진다.

「한라(로)산이 금덩이라도 쓸 놈 엇(웃)으(이)민 못 쓴다。」
: 한라산이 금덩어리라도 쓸놈 없으면 못 쓴다
「한라(로)산이 돈이라도 질빵(집배/집패) 엇(웃)으(이)민 못 지곡, 바닷물이 팍죽이라도 소(수)가락 엇(웃)으(이)민 못 먹나。」
: 한라산이 돈이라도 질빵 없으면 못 지고, 바닷물이 팍죽이라도 손가락 없으면 못 먹는다

옛 제주도 사람들은 한라산을 거대하고 크다고 생각하였다. 저 큰 한라산이 금덩어리나 돈으로 되어 있다고 해도 이것을 사용할 만한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는 생각을 한 것이다.

「용수 여준 새벽이 둥북 흥 짐 안흥민 조반 안먹나。」
: 용수여자는 새벽에 둥북 한 짐 안하면 조반 안 먹는다.
「마라도 모긴 날가죽 석 장을 딸르(루)곡, 용수 모긴 날가죽 장 반을 딸른(룬)다」
: 마라도 모기는 날가죽 서 장을 뚫고, 용수 모기는 날가죽 한장 반을 뚫는다.

「마라도 모기광 용수 모긴 사돈한다」
: 마라도 모기와 용수 모기는 사돈한다.

서귀포시 대정읍의 섬인 마라도와 제주시 한경면의 용수리는 공통점이 없을 것 같지만, 제주속담에서 비교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용수리의 여자는 매일 새벽에 해조류의 일종인 둥복을 한짐씩 하는 등 매우 근면하고 생활력이 강한 것으로 표현된다. 그런데 용수의 모기는 날가죽을 한 장 반정도 뚫을 수준이고, 마라도의 모기는 날가죽 석장을 뚫을 수준이라고 하니 마라도의 모기가 더욱 강하다는 것을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그래도 마라도 모기와 용수리 모기는 사돈을 맺고자 하는데, 이를 사람에게 빗대면 어느 정도 공감대만 형성되면 굳이 차이를 따지지 않고 혼인을 이어가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가파도 좋곡, 마라도 좋곡」
: 갯아도 좋고, 말아도 좋고(가파도 좋고, 마라도 좋고)

이 속담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는데, 하나는 빛이 있는 관계에서 빛을 갯다도 좋고, 안 갯아도 좋다는 의미이고, 또 하나는 가파도라는 섬과 마라도라는 섬 모두가 좋다는 의미이다. 언어유희가 속담에 내포되어 있는 사례이다.

「강정 아이덜은 곤밥 주켹(켹) 흐면 울곡, 조밥(팍) 주켹(켹)흐민 안운다」
: 강정 아이들은 쌀밥 주겠다고 하면 울고, 조밥 주겠다고 하면 안 운다.
「일 강정, 이 법판」
: 일 강정, 이 법환

조선시대 특히, 현무암으로 둘러싸인 제주도는 지질의 특성상 쌀밥이 매우 귀했다. 서귀포시 강정동은 제주에서 유일하게 쌀이 재배되는 지역으로 유명했고, 그 지역 사람들은 매우 부유하게 잘 살았다고 알려진다. 그 다음으로 살기 좋은 부자동네가 법환동이라는 의미이다.

「종달리 소금 시끈 암쇄 가름 돌듯 한다」

: 종달리 소금 실은 암소 마을 돌듯 한다
「종달릿센 지때에 새끼도 못 난다」
: 종달리의 소는 제때에 새끼도 못 낳는다

종달리는 제주도에서 제일 큰 염전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그 소금을 소에 싣고 이 마을 저 마을로 팔러 다녔다고 한다. 그래서 일을 하기 위해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는 상황을 표현하기도 하며, 너무 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종달리의 소는 새끼도 제때에 못 낳는다는 편견이 섞여있는 것이다.

「드릿사람 배창옷 입영 나사민 식개 시넝 혼다」
: 다릿사람 배창옷 입고 나서면 제사 있느냐고 한다.

옛날 제주도에서 사람이 사는 마을 중 최고의 오지마을로 교래리를 꼽았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축과 사냥을 하거나 화전을 일구어서 생활했기 때문에 매우 궁핍한 생활을 하였다. 그러다가 배창옷만 입어도 제사가 있느냐고 물을 정도였다.

「즈드는 사람은 산짓물에 가도 궁근 팡에 앓나」
: 걱정하는 사람은 산짓물에 가도 흔들리는 팡에 앓는다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산짓물은 수도가 개설되기 전까지 제주읍내 사람들이 식수원으로 이용했었던 용천수이다. 걱정거리가 많아 수심에 잠겨 있는 사람이 빨래를 하러 산짓물에 갔더니 하필이면 흔들거리는 돌판이라는 의미이다. 업친데 덩친격으로 일이 꼬이는 현상을 얘기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제주지역의 속담을 활용하여 관광스토리텔링의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속담이란 민간에서 구전으로 내려오는 이야기로서 그 지역의 문화를 가장 잘 반영하고, 주민들의 정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속담을 접하는 청자에게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의 자원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다.

연구대상지인 제주도는 섬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과 고립된 문화를 토대로 매우 독특한 제주방언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로인한 독특한 속담이 전해내려 온다. 이미 관광목적지로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는 제주도에 새로운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제시함으로써 제주의 관광활성화와 함께 제주방언의 보전에도 관심을 기울일 수 있다.

본 연구를 위해 먼저 『제주속담사전』과 『제주속담총론』에 명시되어 있는 속담 중 지명이나 장소가 언급된 속담을 선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가상의 여행코스를 개발하였다. 제주의 관광패턴이 차량을 이용하여 여러관광지를 방문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가상의 여행코스에서 스토리콘텐츠를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스토리텔링 콘텐츠인 해당속담과 그 해설내용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스토리텔링 가상의 여행코스가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진행되었다는 점, 스토리의 해설이 실제 스토리텔링을 진행하는 이야기꾼(텔러)에 적합하도록 재수정 되어야 한다는 점은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그러나 속담에 대한 연구의 방법과 연구 형태를 확장시켰다는 점과 관광학과 언어학의 융합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다. 향후 속담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방안이 매뉴얼화 될 경우 관광가이드 등 일선현장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 연구로서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다.

참고문헌

- 고재환. 2001. *제주속담총론*. 서울: 민속원
- 고재환. 2001. "제주방언과 속담." *반교어문연구* 13: 17-33
- 고재환. 2013. *제주속담사전*. 서울: 민속원
- 김보성 · 이용규. 2014. "해양문학의 콘텐츠를 활용한 관광스토리텔링 개발방안." *한국도서연구* 26(1): 25-48
- 김상규. 2012. "십이지 동물 관련 속담을 활용한 효과적인 경제교육." *경제교육연구* 19(1): 71-96
- _____. 2013a. "곤충관련 속담을 활용한 효과적인 경제교육." *경제교육연구* 20(1): 33-66
- _____. 2013b. "계절관련 속담을 통한 경제교육 활용방안." *경제교육연구* 20(3):

- 37-68.
- 김은주 · 서영희 · 임재택. 2006. "한국 속담에 나타난 전통 아동교육관 연구." *아동교육* 15(4): 37-55
- 김효중. 2012. "관광지 스토리텔링이 관광객 만족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장소성 인식을 조절효과로-." *관광경영연구* 53: 117-142
- 김희정 · 김시중. 2012. "관광지 스토리텔링 선택속성이 관광객 행동반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 -감정반응을 조절효과로-." *국토지리학회지* 46(1): 53-65
- 박덕영. 2015.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속담 교육 연구." *언어학연구* 20(1): 59-78
- 박인성. 2009. "중국속담에 나타난 12지 동물의 상징의미 고찰."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23: 5-33
- 박한식 · 박용순 · 고동완. 2009. "관광프로그램 개발의 스토리텔링 적용 사례 -김삿갓 방랑 서사구조 중심-." *관광학연구* 33(2): 191-208
- 서종철 · 이승주. 2012. "생태관광자원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적용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국토지리학회지* 46(2): 121-131
- 심지연. 2008. "국어속담의 어휘 분석 연구 -일반명사를 대상으로-." *한국어 의미학* 26, 123-152
- 연호택. 1987. "관광측면에서 본 우리속담과 영어속담의 비교연구." *관광학연구* 11: 209-237.
- 이성영. 1991. "속담어법의 국어교육적 의미." *국어교육* 73: 167-185
- 임성택. 2014. "관광스토리텔링 특성이 고객의 지각가치를 통해 관광지브랜드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연구 -관광지스토리텔링 중심으로-." *관광연구저널* 28(2): 139-150.
- 임화순 · 김구 · 남윤섭. 2012. "문학공간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연구 -소설 「지상의 순가락 하나」를 중심으로-." *탐라문화* 40: 139-170
- 장경현. 2007. "속담 속 색채어의 의미 연구 -흑/백 계열어를 중심으로-." *인문논총* 57: 329-360
- 차재빈 · 이훈영. 2015. "관광지 스토리텔링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사용의도에 관한 연구 -기술수용모델을 중심으로-." *관광연구* 30(1): 69-89
- 추정자. 2004. "한일 양국의 속담에 나타난 신체어휘 비교 연구." *비교문화연구* 7: 247-263
- 최권진. 2008. "속담을 활용한 한국어교재 개발의 실제." *국어교육연구* 21: 247-278
- 한형호. 2012. "보길도 관광활성화를 위한 스토리텔링 제언 -역사적 배경을 소재로-." *한국도서연구* 24(2): 67-90
- Gephart, R. P., Jr. 1991. "Succession sensemaking and organizational change: A story of deviant college president." *Journal of Organizational Change Management* 4(3): 35-44
- Ronald, B. L.(1997), "Storytelling: A New way to get close to your customer." *Fortune Magazine*, February 3.
- 두산백과사전: www.doopedia.co.kr
- 위키백과사전: <http://ko.wikipedia.org/wiki/>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관광개발학과
690-756
E-mail: limhs63@jejunu.ac.kr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제주대학교 통변역대학원 한영과
690-756
E-mail: kimwonbo@jejunu.ac.kr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관광개발학과
690-756
E-mail: namyoon79@nate.com

접수일자: 2015. 6. 20
수정일자: 2015. 7. 10
게재결정: 2015. 8. 10

